

새한, 경산공장 설비 구미공장 이전

새한은 경산공장 부지가 2005년 구조조정 차원에서 매각됨에 따라 염가공설비와 필터설비를 경북 구미공장 부지로 이전한다고 11월14일 발표했다.

새한은 구미공장에 2만평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설비이전은 2006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새한 관계자는 “생산설비를 통합하고 공정을 단순화시킴으로써 더욱 경쟁력 있는 직물 및 필터공장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5/11/16>